**행2324 Note**

**◆로마 황제의 관료제도와 해방노예(행동의 자유와 선교 접촉점)**

(신학교 교수의 어느 책에서 쓸만하여 발췌해 놓은 것입니다)

ㆍ원래 로마 공화정 아래서는 관직의 모든 권한들이 하나같이 원로원만 가질 수 있는 대권이었다.

ㆍ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노예들은 주요한 관직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였다. 관직은 노예와 해방노예들에게 사회적으로 상향적인 신분 유동을 위한 중요한 경로를 제공한 수단이었다.

ㆍ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오면서, 원로원을 주축으로 구성되었던 권력구조가 황제 중심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노예들의 사회적 신분의 향상이 나타나게 된다. 황제는 원로원과 맞서서 전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고자 관료제도를 새롭게 창설하였다.

그리고 관직에 노예나 해방노예를 대폭 임용하였는데, 이것은 귀족세력에 대한 황제의 견제심리와 황제와 귀족 상호간의 불신과 압력이 크게 작용한 탓이다.

많은 황제들이 황제로 계승시에 원로원 의원들을 살해하지 않겠다든가, 적절한 재판 없이 처형하지 않겠다고 서약케 한 일도 보여지고 있다.

ㆍ황제와 귀족들과의 제도적인 긴장과 정치적인 대립은 해방노예들에게 상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황제들은 귀족계급을 임용해야 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변모한 제국적인 권위에 맞게끔 기사계급들을 창설하고, 그 자리에 해방노예들도 승급시킴으로 상류 계급사회에서의 황제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려 하였다. 황제들이 행정 요직에 미천한 출신의 인물들을 승급, 임용한 것은, 그들이 귀족계급과 이해관계가 없었고, 쉽사리 귀족들에게 동화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황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황제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서 황제의 세력원이 되기 때문이었다.

타키투스는 네로시대의 기사뿐 아니라, 대다수의 원로원 직원들은 노예의 자손이었다고 말하였다. 황실이나 정부 내의 높은 부서에 노예들을 대거 등용함에 따라 그들의 신분이 상승된 것이다.

ㆍ관직이 초기부터 하층신분의 사람들로 충원된 것은 황제가 원로원과 맞서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층 사람들의 임용을 회피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귀족들도 황제의 고용인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관직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들은 자유민으로서 고용주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직책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으로 노예와 해방노예들에게 비서직이나 지배인역이 맡겨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황제가 노예들을 재정관으로 맡기는 이유는 그들이 노예신분이기 때문에 황제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었다.

노예가 행정직에 배치되는 또 하나의 다른 집단으로는 재정관들의 보좌역이나 대리인 직에 해당하는 재정대리인들이었다.

ㆍ위이버의 '초기 로마제국의 사회적 유동'이라는 논문에서 황실세대 이외에 로마에서 나온 700명의 노예와 해방노예들의 결혼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자. 당시 그들은 배우자들 중에 적어도 한쪽이 노예, 또는 해방노예가 확실한 집단 중 해방노예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부인들 중에 15%가 자유민 태생일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황실에 소속된 노예 구성원들이 낮은 법적 신분에 비하여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높게 인식되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클라우디우스황제의 해방노예로 구성된 비서실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었으며, 제국이 지정한 통치자였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 중의 한 사람이 유다를 통치하였는데, 클레오파트라의 자손과 결혼하였던 펠릭스(Feliex)였던 것이다.

노예가 노예를 거느린다는 것과, 자유민과 결혼하여 다른 사람을 통치한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자유민과 대등한 입장이었음을 나타낸다.

ㆍ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로 보냈던 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 디도, 골로새 교회에 보냈던 두기고, 또한 바울이 선교여행 중에 만났던 뵈뵈, 빌롤로고,에베네도,버시,드루배나,루포 등이 그 당시 로마에 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어느정도 행동이 자유로운 존재였다는 것을 뒷받침 해준다.